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김O미 목사 (인도 선교사)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장 39절)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수고와 헌신의 땀을 흘리고 계신 후원자님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아울러 인도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과 지옥과도 같은 깊은 수렁에서부터 오는 곤경을 지금 직면하든지 장래에 직면하든지, 그것들이 우리 위에 있든지 아래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증명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CSI 학교 건물 증축 공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후원자를 만나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나, 인도 현지의 지방선거와 난달 노회의 행정이 답보 상태여서 위·아래로부터의 여러 상황에 저의 마음이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조급해하던 제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1. CSI 기독학교 건물 증축 공사



이 ‘CSI 기독학교’는 참으로 의미 있는 학교입니다. 난달 노회가 인도 정부의 인가를 받고, ‘기독 정신’으로 운영하는 사립 학교로, 난달 노회 내에 유일한 ‘기독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불가촉천민들의 자녀에게 ‘영어 교육’을 통해 직업의 기회도 갖고, 자신의 위상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며, 카스트와 종교를 떠나 사회의 일꾼으로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운영에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한국의 기장(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의 여러 교회들의 협력으로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건물과 중·고등학교 건물 사이의 거리가 멀고, 초

등학교 건물이 노쇠하고 비가 새며 지대가 낮아 물이 교실로 역류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중·고등학교 건물을 증축하여 초등학교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교육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2025년 '서귀포 중앙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마침내 4월 20일, 난달노회 노회장 산토쉬 프라산나 라오(Rev. K. Santhosh Prasanna Rao) 목사님과 노회 임원들, 교직원과 전교생이 모여 기공 예배를 드리고, 첫 삽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 자주 장사 '루디아'가 되는 '재봉틀 교실' 수료식



어느덧 10년 동안 '여성 자활'을 위한 프로젝트인 '재봉틀 교실'이 또 한 번의 작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7월, '준비된 재원도 없이 시작하여 과연 이 회기를 다 마칠 수 있을까?' 염려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한성교회와 동촌교회, 그리고 안OO 장로님을 통하여 12명의 '루디아'를 탄생시켰습니다. 귀족들의 고급 옷감인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멤버가 되는 여인 루디아처럼 '재봉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과 가족을 일으켜 '가정교회'의 개척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재봉틀 교육을 통해 훈련생들은 남편에게만 의지하던 것에서 벗어나,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으며, 남편과 가족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실제적, 경제적인 지원과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훈련 받는 10개월 간 종교를 떠나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경험을 잇을 수 없으며, 이 훈련장을 떠날 생각에 눈물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신들과 자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던 시간이 그림고, 기도하는 법도 배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내어놓아 복음 전파에도 앞장서는 '제2의 루디아'로 성장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3. 장학기금을 위한 '바자회'

한국의 끝, 제주도에서 사랑과 정성을 싣고 바다 건너 물건들이 도착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배로 한국을 떠나 보낸 것이 인도에 도착한 것이 올 2월입니다. 3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거쳐 무사히 도착하여, 이곳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한국의 물건들을 싣 가격에 판매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19,500루피(한화 약 31만원)의 수익이 창출되었습니다. 이것을 공부방 스탭들과 함께 기도와 회의 끝에 '장학회 기금'으로 조성하자고 결정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전문대학이나 대학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6명)과 공부방 직원들(5명)이 'SSPROK'(Scholarship Society of PROK, 한국기독교장로회 장학회), 즉 기장의 장학금이나 자매결연 후원을 통해 공부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돕겠다며 '장학회'를 결성하였으나, 씨드머니(Seed money, 종자돈)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으로 정말 공부하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바자회 물품을 보내실 때, 새 물건이 아니라서, 물량이 적어서... 고민하시는 교회와 개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체국 소포비가 만만치 않지만, 이곳에서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적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드릴 어린아이를 찾고 계실 뿐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공부방, 신학생 장학회, 여자전도사 양성과정.



(왼쪽부터 공부방, 신학생 장학회와 여자전도사 양성과정)

공부방과 여지전도사 양성과정은 무더운 여름을 맞아 방학으로 한 템포 쉬를 갖습니다. 이 쉬를 통해 영육이 강건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쁘고 복된 소식은, '신학생을 위한 장학회'를 조직한 것입니다. 그동안 기장의 장학금 지원을 받아 공부한 신학생 중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이 11명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 자신의 후배들을 위한 장학회를 구성하였으니, 제대로 된 출범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올 해 2명의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예수 사랑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PROKHS'(PROK Hope Scholarship, 기장 희망 장학금)라 명명하며, 정식으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11명 모두 증인됨과 조직을 만든 것에 자부심이 생겼고, 받는 것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주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임을 체험하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존경하는 후원자님,

지난 선교 편지에서 '구왈라군틀라' 교회를 비롯한 5개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봉헌하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이 교회들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중 두 교회가 기장 교회들과 건축 지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삼겹줄로 묶어 주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확실히 보여 줄 것입니다. 아직 인도의 작은 마을들에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꺾지도 상하게도 않으시고, 그 마음을 받아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아래와 같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부족한 자의 영육간에 강건함과 주께서 동행하심, 입술에 권능을 더하소서.
2. CSI 기독교 증축 공사에 함께하사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하소서.
3. 아직 형제를 만나지 못한 다른 인도 교회에도 여호와이레하여 주소서.
4. 여름 동안 모든 현지 사역자들과 어린이들, 그 가정을 보호하소서.

하나님은 인도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부터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오늘도 보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6년 6월 10일 후원자님의 평안을 기도하며....